

꿈나무 마술사들의 경합



민준서군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



박상준군의 불꽃쇼.



박성윤군의 퍼포먼스.



특별상



인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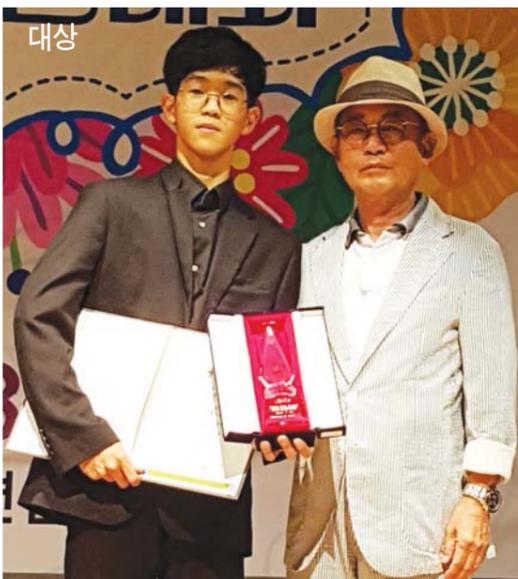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이인성군의 코믹한 연기.

흰 비둘기 묘기를 벌인 박주영군.



드라마틱한 연기를 벌이고 있는 이승민군.



박종원군의 카드묘기.



식전·특별무대를 벌인 초대가수들과 댄스팀.

이규진군의 CD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성황'

제8회 전국청소년 마술경연대회가 지난 28일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최로 총 8명이 출전자로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심사위원으로 박명웅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무총장, 김영재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소경희(사)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가 참여했다.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는 대회에서 "우리 사회에 마술이 널리 확산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전북에서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실현해 나갈 것"을 기원했다. 또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청소년 마술경연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갖고 있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마술사의 특별무대.

